

제 8 장

하나님의 성육신의 기적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았읍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여수아, 히브리어. 예수, 헬라이어. 어떤 단어에서든지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다]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1~33).

천사의 이 선언이 있는 이래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극심하게 방해를 받았고 부인되었고 혼란을 받아 왔읍니다. 선포되지 않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비판받을 일도 없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19에서 그의 적대자들에 의하여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도 격렬한 반대와 거부가 있었읍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케린투스(Cerinthus)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읍니다. 케린투스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 의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가르쳤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메시아적인 성령, 즉 그러한 어떤 감화력이 임하셨고 그의 십자가에서 그 성령은 떠나가 버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케린투스는 성육신과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는 오랜 세대 동안에 걸쳐서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아 놓은 것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비도덕적으로 부당하게 출생하셨다는 암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판데라라고 하는 어떤 로마 장교가 나사렛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살았다고 가상합니다. 그러한 비합법적인 결합에 의해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출생이 비합법적이라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계속하여 전해져 내려 왔습니다.

2세기에 살았던 총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적대자 켈수스(Celsus)도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을 거부하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Voltaire)는 매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역시 이러한 중상을 탈무드에 이어서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성경의 영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전 세계로 파급되었습니다. 모든 교파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문제를 야기시켰고, 심지어 우리가 속한 남침례교까지도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냐 하는 것, 혹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논쟁이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계에서 발생한 첫번째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두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학

자들은 처녀 탄생에 관한 교리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문필가 중 한 사람인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기적을 함축하고 있고,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적은 발생하지 않는다.”

루프(Loof)라고 하는 합리주의적인 고등 비평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처녀 탄생을 전설(허구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주요한 토론을 야기시키는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처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을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성경이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야하고 막을 수 없는 끝없는 상상력에 의해서 단지 조작된 것뿐이다.”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인간 삶의 위대한 몇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사실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나는 이에 비견할 만한 또다른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와 율리우스 시저의 생애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생애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와 호머와 단테의 천재성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나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그 탁월한 과학적인 능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범주에 속하며, 인간적인 기원에 속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고 뛰어난 인격을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어떤 층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그분은 다른 위대한 인간들과는 완전히

상이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슈미트(Schmidt)라는 어떤 합리주의자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심리학적으로, 인과적으로 혹은 진화론적인 발전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수의 의식과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독창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이 지상의 위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과 이 전 우주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나는 반복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사이비 과학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에 대한 어떤 자연적이고 현상적인 설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매우 교묘하게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묘한 실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그 놀라운 기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양쪽에 물이 마치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올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다시 합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그 바로의 군대는 그 물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홍해가 아니다. 그곳은 갈대 바다이다. 그리고 그 바다는 매우 얇았기 때문에 그들의 발목까지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얇은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단지 걸어서 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얇은 곳에서 완전히 빠져 죽을 수 있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대로 훌륭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제거해 버리려는 설명을 시도하는 비평가들은 그러한 기적적인 요소들을 없애 버리는데,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의 기도에 의한 불의 기적을 단지 번개불이라고 설명해 버립니다. 그 번개가 내리쳐서 바로 그 순간에 희생 제물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자연적인 것이었고 우연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정신 이상의 일종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단지 어떤 환각 작용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믿는 자들은 실제로 얼뜨기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에 대한 자연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설명을 찾아 내려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자들은 또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처녀 탄생을 제거해 버리고 맙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지성인들은 처녀 탄생을 소위 단성 생식(parthenogenesis, 처녀 생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떤 포자(spores)와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생식을 하는 균류(fungi), 조류 또는 나무에 기생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암수가 서로 필요없고 자신의 씨에서부터 자신이 스스로 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나무에 기생하는 어떤 생물이나 균류 또는 조류와 같이 자기 생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학적인 논의를 하는 어떤 모임에서 한 선생이 처녀 탄생에 관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대학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일어나서 마리아의 출생에 관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어

면 암컷 토끼들은 수컷이 없이도 쇼크를 받게 하여 임신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경우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선언으로 인하여 쇼크를 받아서 임신이 되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론은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는 처녀탄생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를 나무에 기생하는 어떤 생물이나 균류 그리고 어떤 조류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을 하려는 것이나 쇼크에 의한 임신이 가능한 토끼의 경우에 비교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녀 탄생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사본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처녀 탄생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사본을 찾아보면 모든 고대 사본에서 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비교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헬라와 로마의 신화에 나타난 현상적이고 기적적인 출생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위대한 위인들에 관한 신화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필립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모친과 동거를 했던 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옥타비우스(Octavius)의 모친은 아폴로의 신전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때에 아폴로는 자신을 뱀으로 변신하여 그곳에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옥타비우스 시제가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나는 그들이 왜 이렇게 뱀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알크메네(Alcmene)는 엘렉트리온(Electryon, 총명의 신)의 딸이고, 엘렉트리온은 페르세우스(Perseus)의 아들입니다. 알크메

네의 남편이 출타했을 때, 주피터는 자신을 그녀의 남편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피터의 아내인 쥬노(Juno)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두마리의 거대한 뱀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헤라클레스가 한 손으로는 뱀을, 또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뱀을 잡아서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신화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킬레스(Achilles)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것입니다. 펠레우스(Peleus)는 텃살리(Thessaly)의 왕이었는데, 그는 바다의 요정인 테티스(Thetis)와 동침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아킬레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테티스는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River Styx,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강-역주)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그곳에 담구어서 영원 불멸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테티스가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약점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의 파리스는 독을 묻힌 화살을 사용해서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를 쏘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외의 전승에는 고타마 부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타마가 죽은 후 200년이나 혹은 300년 동안에는 그의 출생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서 고타마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친이 어느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 속에서 여섯 개의 상아가 달린 거대한 코끼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는 그 모친의 옆구리 속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와서 고타마 부다, 즉 “깨달은 자”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며, 언어 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모두다 허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처녀 출생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는 확실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육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세계를 위한 구세주의 성육신을 대비하여 한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놀라운 처음 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역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었던 부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롬 1:4)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자궁 안에 한 몸을 창조하셨고, 또한 바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그 몸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놀라운 출생의 기사에서부터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사역에 대한 기사를 읽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불일치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그의 손으로 소경된 눈을 뜨게 해 주셨고, 이때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시고, 끝내는 그분 자신이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아름답고 완전한 모자이크와 같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육신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적이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혼돈의 이 세계의 표면을 감싸시고 어둠에서 빛을 가져오셨고, 혼돈에서 어떤 형상을 가져오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셨고,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악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대한 심판시에 노아를 따로 부르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배교가 범람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변호자로서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에 위대하신 메시아의 왕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침례(세례)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또다른 위대한 개입이 있

입니다. 이 시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때에, 시간의 최후 종말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몸을 지니신 분으로 이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영광의 구름 위에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친히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을 아셨고, 인간의 눈물을 흘리셨고, 인간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약함을 견디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우리 가운데서 헤아린 바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어느날인가는 나타나게 될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희생을 위한 몸의 창조

우리가 처녀 탄생을 놀라운 일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사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몸을 친히 받아 들이신 것 때문에 그것을 놀라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서의 모든 장들을 육개월에 걸쳐서 아침과 저녁에 강해하였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그러한 날들이 주어진다면, 나는 또다시 히브리서 10장을 강해하고 싶습니다. 그 장에서 그 저자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결코 없이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는 우리에게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장래의 불법을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희생 제사는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사는 우리 영혼의 범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데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로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 이미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은 그러한 일을 결단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몸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그 몸을 창조하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형상을 입게 되어 성육신을 하셨으며,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무에 달려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죄를 위한 제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속과 속죄와 대속과 용서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처녀 탄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과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에 처녀 탄생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생물학적인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위대한 생물학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 기적은 처음에 아담의 창조와 더불어서 세포의 분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몸에는 수천 억의 세포 또는 수억의 세포들이 있으며, 각각의 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는 작은 섬유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유전인자와 생명의 인자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인 기적으로 아담

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세대에는 세포 분열의 기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각 염색체는 정확하게 둘로 쪼개어져서, 46개인 반조각은 한쪽 편에, 다른 나머지 46개는 또다른 한편으로 갈라지게 되어서 그 세포벽은 중간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 몸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난자에 23개의 염색체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정자에도 23개의 염색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합하게 되어 임신을 하게되면 다시 46개의 염색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생물학적인 기적입니다. 즉 이 기적은 세포 분열의 기적이며 임신과 인간 생명의 창조의 기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정확한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원 의원의 청문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1+1=2$ 또는 $2+2=4$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성의 난자 23개 염색체와 남성의 정자 23개 염색체가 결합되어 질 때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피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두번째 생물학적인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 친히 세포 분열의 유전자 변화에 개입하시므로 인하여 인류 역사에서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초유의 창조적인 작업을 행하신 것입니다. 정자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몸 안에서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를 가능케 하였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 친구 그리고 우리의 동료, 순례자, 우리의 동정 많으신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왕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육신이 너무나 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토록 빈약하게 잘 표현이 되지도 않는 채로 감히 입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육신을 바라보고, 성육신에 대해서 읽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읽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탄생과 하나님의 성육신이 그토록 아름답고도 명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창세기 3:15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은 사단의 머리를 부스러뜨리게 될 여인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만이 씨를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랍비들도 이 구절에 크나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이야기가 성취될 때까지 이 구절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씨, 즉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뜨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3:15의 의미이며, 우리는 수 천년이 지나기까지 그 구절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데도 견줄데가 없는 이사야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에서도 아름다운 예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

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 : 6).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비할데 없는 찬양의 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 : 1, 14).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한 장엄한 구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 : 4~5).

우리는 우리의 형제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놀라운 초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 : 16~17, 20).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희망입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있어야 할 것입니다.